

#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종교결사와 지방당국의 대응\*

박 경 식\*\*

## 목차

- I. 머리말
- II. 민간종교결사의 개황과 흥기의 배경
  - 1. 민간종교결사의 개황
  - 2. 민간종교의 유입과 흥기의 배경
- III. 민간종교의 존재 양태와 지방당국
  - 1. 민간종교의 존재 양태와 특징
  - 2. 민간종교에 대한 당국의 인식과 대응
- IV. 맺음말

## I. 머리말

본고는 중층적 역사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검증된, 그리고 중국인의 일상생활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무형의 사회운영시스템으로서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A00002).

\*\*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조교수.

의 ‘관행’을 통해 중국사회의 통시적 변화와 지속을 조망하려는 관점에서<sup>1)</sup> 출발한다. 민간신앙은 고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의 일상적인 삶과 민간사회의 변화와 지속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기층민중의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에 틀림없으며, 장기적인 역사변천과정에 있어 일반민중의 사유방식과 사회관계, 정치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sup>2)</sup> 또한, 민간의 원시신앙으로부터 변이 되고 전승되어진 ‘思維 觀念의 習俗이자 慣例<sup>3)</sup>’이다. 이런 점에서, 민간신앙을 통해 ‘관행’이 근대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접근해 보려는 것이다.

사실 민간신앙이라는 용어는 흔히 쓰이지만 매우 모호한 개념이고, 각 나라마다 학문적 전통과 언어 습관에 따라 매우 복잡한 차이를 보인다.<sup>4)</sup> 본고에서 다루는 민간신앙이란 말 그대로 ‘예부터 전해져 내려와 민간에서 일상적으로 영위되는 신앙, 체계화되지 않은 종교적 관행’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몇 가지를 포괄한다. 첫째, 불교나 도교, 유교, 이슬람교, 기독교와 같은 지배종교와 구분되는 이른바 ‘民間宗教結社’가 포함된다. 사료에서는 당국에 의해 ‘邪教’로 규정되었다. 둘째, 歷代로 ‘祀典’에 기재되어 국가에서 공식 제사를 지내는 ‘正祀’를 제외하고,<sup>5)</sup> 민간에서 제

- 
- 1)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전인갑/장정아, 『중국 관행 연구와 중국 연구의 재구성 - 試論的 接近』, 『中國近現代史研究』 제48집, 2010.12. 참조.
  - 2) 金相範, 『唐代 民間 祠廟信仰 研究의 回顧와 展望』, 『中國史研究』 第14輯, 2001.8, 213쪽.
  - 3) 江沛, 『近代華北城鄉民間信仰述評』,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7卷 第4期, 2002, 18쪽.
  - 4) 민간신앙 및 민간종교의 개념에 대해서는, 최준, 『중국 동북지역의 민간신앙』, 『중앙민속학』 제12호, 2007, 102~104쪽. ; 이은자, 『의화단운동 전후의 산동 - 민간종교결사와 권회에 관한 연구』, 고려대출판부, 2002.12, 1~3쪽. 宋堯厚, 『中國 民間宗教 研究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摸索』, 『明清史研究』 第34輯, 2010.10, 246~255쪽. 吳眞, 『民間信仰研究三十年』, 『民俗研究』 2008年 第4期, 40쪽. 등 참조.
  - 5) 正祀와 淫祀는 유동적이다. 正祀가 淫祀가 되고 淫祀가 正祀가 되기도 한다. 正祀와 淫祀를 구분하고, 淫祀를 철폐하려는 것은 漢代부터 계속되어 온 정책이다.(曹貞恩, 『崇拜와 禁止 : 清代 福建의 五瘟神 信仰과 國家權力』, 『明清史研究』 제27집, 2007.4, 328쪽.)

사를 지내는 이른바 ‘淫祀’가 포함된다.<sup>6)</sup> 셋째, 呪術, 占卜 및 예언, 風水, 禁忌 등 지배세력에 의해 ‘迷信’으로 치부되었던 광범위한 신앙 행위 및 현상을 포함한다. 모두가 국가권력과는 별개의 영역, 때로는 상반된 영역에서 존재했던 민간의 신앙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민간종교는 종교적 성격(교리, 조직 등)을 갖는 신앙체계로서, 민간신앙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민간신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실로 방대하여 본고에서 정리해 언급하기는 불가능하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민국시기의 민간종교로 한정해 본다면, 기존 연구는 대체로 종교 자체에 관한 분야와 민중반란과 연관된 분야로 나뉜다. 말하자면, 민간종교결사의 정치적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것인데, 白蓮教를 비롯한 민간종교가 민중반란을 통해 국가권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 一貫道나 道院, 紅槍會와 같은 큰 조직의 추이를 좇아 시간과 공간이 설정되었다. 또한, 일정한 시공간 안에서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민간종교를 인식하기보다는 근대적 내셔널리즘에 입각해 조망함으로써, 대체로 근대화 와 국민국가의 건설, 미신타파 등과 같은 거시적인 담론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민국시기의 대표적인 민간종교결사가 전국화, 세력화, 조직화를 도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sup>7)</sup>

---

清代만 보면, 正祀의 대상은 社稷, 風雲雷雨, 山川, 公厲, 先農, 孔子(從祀 포함), 城隍, 關羽, 文昌 등이었다.(이윤석, 『중국 근세의 祠廟와 지방 통치 - 全國通祀 및 神像存廢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제119집, 2012.6, 131쪽.)

6) ‘淫祀’의 숭배 대상, 즉 ‘民神’으로는 자연 숭배에 해당하는 天地神, 太陽神, 月神, 水神, 火神, 山神, 牛王, 馬王, 蟲王, 胡仙, 黃仙, 白仙, 柳仙, 灰仙, 苗王, 瓜王 등, 생활을 보호하는 城隍, 子孫娘娘, 送子觀音, 送子張仙, 瘟神, 痘神, 藥王, 門神, 財神, 福神, 祿神, 壽神, 喜神, 關帝, 龍神 등, 行業을 보호하는 酒仙杜康, 茶神陸羽, 獄神皋陶, 窯神太上老君, 梨園神唐明皇, 飲食業灶君, 文人文昌帝君, 木匠魯班 등등 무수히 많다.(黃云鶴, 『清至民國時期的東北民神』,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年 第3期, 2007.6, 94~95쪽.)

7) 기존 연구의 경향에 대해서는 유장근, 『근대중국에 있어서 국가권력과 종교』, 『근대중

아무튼 일정한 지역에 한정해서 민간종교의 존재양태에 폭넓게 접근하는 연구는 별로 없다. 이에, 본고는 民國時期(滿洲國 성립 이전) 동북지역에 한정하여<sup>8)</sup> 일상 속에서의 민간종교결사에 주목하고자 한다.<sup>9)</sup> 이와 같이 지역성 자료에 기초한 개별연구는 민간종교결사에 대한 연구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대한다. 일정한 시공간 안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건설이나 미신타파 등과 같은 거시적인 담론이 지방 차원에서 표현되는 또 다른 방식이나 이에 대한 지방 사회의 응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동북지역 민간종교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던 것은 아마도 쓸모

---

국의 지역사회와 국가권력', 신서원, 2004.06, 144쪽.; 이은자, 『의화단운동 전후의 산동 - 민간종교결사와 권회에 관한 연구』, 7~14쪽.; 이은자, 『중국 민간 종교 결사, 전통과 현대의 만남』, 책세상, 2005, 24쪽.; 이은자, 『秘密結社の 遺産과 現代中國 — 法輪功의 歷史的 起源』, 『中國學報』 第47輯, 2003. 참조.

- 8) 滿洲國 성립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한 것은 우선은 자료의 제한 때문이지만, 滿洲國의 성립 자체가 전혀 다른 환경이 성립된 것이므로 별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지역을 선택한 것은 민간종교결사의 대략적인 분포를 파악하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중국사에서 주목해야 할 지역적 특수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 9) 동북지역의 민간종교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中國東北史』에서 原始時代부터 滿洲國時期까지 各 章別로 宗教와 信仰을 다루고 있어 기초자료로 참고할 만하다. 하지만, 서술이 개설에 그치고 내용도 주로 지배종교에 치중되어 있다.(佟冬 主編, 『中國東北史(修訂版)』(全6卷), 吉林文史出版社, 2006.1.) 이밖에, 동북지역의 민간신앙이나 '民神'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글이 있고,(黃云鶴, 『清至民國時期的東北民神』,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年 第3期, 2007.6.; 최준, 『중국 동북지역의 민간신앙』, 『중앙민속학』 제12호, 2007.) 단편적으로 민간종교결사 중의 하나인 黃天教를 다룬 연구가 있으며,(曲曉范, 『清末民初中國東北地區黃天教活動考』,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6卷 第4期, 2005.8.) 祈雨祭의 양상을 고찰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王虹波, 『民國時期東北地區的巫術救荒-以盛京時報記載爲中心的考察』, 『求索』 2010-6.; 趙英蘭、劉揚, 『清末民初東北民間祈雨信仰與社會群體心理態勢』,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第51卷 第5期, 2011.9.) 이들 연구는 본 연구에 적잖은 도움을 주었으나, 본고와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는 아니었다.

있는 자료를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도 遼寧省檔案館에서 펴낸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을 구할 수 없었다면 연구를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sup>10)</sup> 이 자료집은 총 27冊에 걸쳐 약 13,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데, 본고와 관련해서는 國家地方祭祀(제4~5책), ‘演劇酬神’(제5책), ‘查禁邪教’와 ‘破除迷信’(제8책) 및 滿洲國時期 향촌조사 보고서(제9~12책) 등이 유용하다. 이밖에는 기타 民俗 및 文物古跡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다.<sup>11)</sup> 시기적으로는 滿洲國 성립 이전 民國時期的 자료가 많으나, 清末을 중심으로 한 清代 檔案도 포함되어 있다. 본고는 『盛京時報』 등을 일부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이 자료집의 8책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자료집이 해당 시기의 유관 檔案資料를 모두 수록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편집자의 취사선택이 있었겠지만, 사안별로 상당수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대략적인 全貌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sup>12)</sup>

이하에서는 그 존재양태 및 지방당국과의 대응 등에 주목하여 민국시기에 동북지역에서 당국이 ‘邪教’로 규정했던 민간종교결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민국시기 동북지역에서 활동했던 민간종교결사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개황을 고찰한다. 개별 종교결사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매

10)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全27冊),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11) 2005년 출간된 이래 이처럼 귀중한 자료집이 거의 활용되지 않아 다소 의아하다. 필자가 검색한 바로는 이 자료집을 인용한 연구가 모두 6편 있는데, 민간신앙과 관련이 있는 논문은 1편뿐이다.(趙英蘭、劉揚, 『清末民初東北民間祈雨信仰與社會群體心理態勢』,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第51卷 第5期, 2011.9.) 그것도 단 한 곳에서 단편적으로 인용하였을 뿐이다.

12) 檔案(공문서) 자료이기 때문에 당국이 주목했던 사안에 한정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본고가 민간신앙과 지방당국의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일정 정도 자료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에 民衆은 스스로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중이 직접 기록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어쩔 없는 측면이 있다.

우 큰 주제이므로 이를 일일이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 본고에서는 초보적으로 대략적인 지형도를 그리는 데에 머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존재양태 및 특성, 이에 대한 당국의 인식과 대응, 당국과 민간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전반적으로 동북지역이 이주민에 의해 개발된 이민사회임을 고려할 것이고, 민간종교를 정치적 맥락에서 볼 것인가, ‘비정치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염두에 둘 것이다.

## Ⅱ. 민간종교결사의 개황과 흥기의 배경

전술하였듯이, 白蓮教를 비롯한 민간종교결사는 민중반란을 통해 국가 권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 ‘반역’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고 이런 경향이 연구에도 일정 정도 반영되었다. 그렇다면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종교는 실제 어떤 존재양태를 보였을까. 아래에서 우선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이하 ‘檔案資料’라고 칭함)에 나타나는 민간종교결사가 대략 어떤 양태를 보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양태의 특징적 면모를 간취해 보고자 한다.

### 1. 민간종교결사의 개황

상기한 ‘檔案資料’에는 다수의 ‘邪教’ 사건이 등장한다. 적발한 민간종교결사의 教徒를 상부에 송치하거나 어느 지역에 ‘邪教’가 창궐하니 엄격히 단속하라는 지시가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우선 당시 동북지역에 어떤 민간종교결사들이 존재했는지를 알아본다.

#### (1) 유입된 민간종교결사 : 黃天教, 大乘門, 白陽教, 家理教

‘檔案資料’에 보이는 동북지역의 민간종교결사를 보면, 內地에서 이미 일정한 세력을 갖고 있던 결사가 동북지역으로 유입된 경우가 많았다. 민

간종교의 유입은 주지하듯이 근대 이후의 동북 사회가 내지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을 통해 성립되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동북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민간종교결사는 黃天教였다. 黃天教는 黃天道, 黃天道教라고도 했는데, 明代 嘉靖年間에 河北省 萬全縣 사람 李賓에 의해 창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李賓은 군대에 갔다가 전쟁 중에 눈을 잃고 明末의 여러 秘密教門을 떠돌다가 黃天道教를 창립했다고 한다. 清代 初期에 그의 후예들이 계속 傳道에 나서 화북지방에 널리 퍼졌고, 당시 영향력이 비교적 컸던 민간종교의 하나가 되었다. 이후, 乾隆 28년(1763) 4월, 黃天教의 오랜 거점이었던 碧天寺(河北省 萬全縣 膳房堡 소재)에서 회동하고 있던 지도부가 대거 체포되는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黃天教徒가 체포되는 일이 몇 차례 이어지면서, 清末에는 교세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던 터였다.<sup>13)</sup>

동북지역에서는 民國 初년에 갑작스럽게 그 존재를 드러낸다. 1914년 6월과 8월에 『盛京時報』에는 黃天教의 내용, 蔓延함, 최근의 거동을 알리는 장문의 기사들이 실리는데,<sup>14)</sup> “雙陽縣의 저명한 黃天教 教主 蔡國山이 체포되어 黃天教의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한”<sup>15)</sup>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주 蔡國山의 존재는 ‘檔案資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黃天教를 비롯해 민간종교가 흥기하는 배경에는 대개 인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도사리고 있었다. 『盛京時報』의 관련 기사는 1910~12년간 동북에 크게 유행했던 콜레라 전염병이 黃天教의 흥기에 일정한 계기를

13) 張莉, 『黃天教在清代的傳播』, 『歷史檔案』 1996年 3期.

14) 『東三省之邪教世界』, 『盛京時報』 1914.06.06. ; 『黃天教之內容』, 『盛京時報』 1914.06.12. ; 『黃天教蔓延如此』, 『盛京時報』 1914.06.24. ; 『黃天教最近之舉動』, 『盛京時報』 1914.08.21. 등.

15) 『黃天教之內容』, 『盛京時報』 1914.06.12.

16) 『北鎮縣查明縣屬境內並無黃天邪教(1915.08.31)』,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15쪽.

제공했다고 한다. 1912년 콜레라가 유행했는데, 黃天教은 木板을 만들어, ‘콜레라의 발생을 인민이 黃天教을 믿지 않아 하늘이 재앙을 내릴 징조라고’ 선전하였고, 전염병에 대한 인민의 공포심을 부추겨 입교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콜레라를 피할 수 있는 符籙을 인쇄해서 판매하였고 그 돈으로 각지에 靈岩閣과 같은 시설을 건축하자 다수의 인민이 앞다투어 입교했다고 한다.<sup>17)</sup>

콜레라의 유행이 黃天教의 확산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黃天教이 설파한 教義를 보아도 앞뒤가 맞아떨어진다. 입교를 권유하는 教義의 골격은 비교적 단순하다.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대재앙이 있을 터인데, ‘입교하지 않은 자는 이를 피할 수 없고, 입교한 자는 樂土로 들어가 일하지 않아도 金銀과 토지, 먹거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부금을 포함한 기여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는데, 衆生, 天恩, 保恩, 正恩, 丁行이라는 다섯 등급이 있었고, 그나마 여성은 正恩까지만 올라 갈 수 있었다.<sup>18)</sup> 주지하듯이 白蓮教 이래 비밀결사종교가 갖는 勸教의 기본 골격과 맥락을 같이 한다.<sup>19)</sup>

전도 방법으로는 單度法(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전도) 또는 齊度法(남녀가 상호 전도)이라 하여 ‘맨투맨’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었다.<sup>20)</sup> 또한, 明正學堂과 같은 ‘宣講堂’을 빌려 宣講을 통해 전도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乩壇을 세우고 砂盤과 木筆 등을 마련해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扶乩를 시행했다고 하는데,<sup>21)</sup>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

17) 『黃天教蔓延如此』, 『盛京時報』 1914.06.24.

18) 『黃天教之內容』, 『盛京時報』 1914.06.12.

19) 특히, 黃天教은 워낙에 ‘無生老母’ 신앙이 체계화되는 과정에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한다.(沈偉華, 『芻議黃天教无生老母信仰的形成及其在民間宗教信仰體系中的地位』, 『淮陰師範學院學報』 第35卷, 2013.5.)

20) 『黃天教之內容』, 『盛京時報』 1914.06.12.

21) 『黃天教蔓延如此』, 『盛京時報』 1914.06.24.

오던 점술의 일종이다.

이상의 黃天教은 동북지역에서 민간종교 가운데 가장 만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檔案資料’를 살펴보면, 奉天, 哈爾濱, 呼蘭, 遼陽, 錦西, 興城, 西豐, 本溪, 雙陽, 北鎮, 黑山, 蓋平, 開原 等 거의 전역에서 黃天教가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거나, 黃天教徒가 적발되었다.

민국시기 동북지역에서 당국이 주목한 또 다른 민간종교는 大乘門(大乘教)이다. 大乘門 역시 워낙에 전국적인 종교결사였다. 주로 河北, 山東, 安徽, 浙江, 江西, 福建, 臺灣, 甘肅, 寧夏 등에 널리 퍼져 있었다. 계통으로 볼 때 大乘門은 黃天教와 마찬가지로 羅教에서 연원하는 하나의 支派로 볼 수 있다. 元代 말기 미륵신앙과 白蓮宗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白蓮教의 탄생이 민간종교결사의 기점이었다면, 羅教의 등장은 白蓮教 이후 민간종교결사의 역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劃期를 이루었다. 羅教는 明代 중기 羅淸이라는 인물에 의해 창시되었는데, ‘無生老母’라는 전에 없던 새로운 신격을 창출하고, 이를 최고의 神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설정하였다. 羅教는 白蓮教와 명확히 다른 교파였지만 明末淸初 백련교의 교리, 특히 미륵하생신앙과 혼용되면서 여러 중요한 교파들을 창출시켰다. 羅教가 등장한 이래 淸代에 걸쳐 성립한 민간종교결사는 대부분 羅教의 교리와 백련교의 미륵하생신앙이 혼용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大乘門 또한 이런 맥락에서 성립된 수많은 教門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民國 이후 大乘門은 일정 정도 변질되어 官僚나 政客과 결합해 세력을 확장하고 기층 인민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고, 다수의 수령이나 간부가 지주 토호나 지방 관리였다고도 한다.<sup>23)</sup> 일반적으로 말해서, 明清時期에는 일부 몰락 지식인과 游民, 無賴 등을 제외하고 농민이 민간종교결사의 대부분을 이루었지만, 民國시기에 들어서면서는 군벌, 관

22) 이은자, 『중국 민간 종교 결사, 전통과 현대의 만남』, 35~44쪽.

23) 趙嘉朱, 『綜論會道門의流傳演變與活動特点』, 『貴州文史叢刊』 2005年 第3期, 3쪽.

료, 지주, 자본가 등도 참여하였다는<sup>24)</sup> 점에서 상통하는 바가 있다. ‘檔案資料’를 보아도, 鳳城縣에서 大乘門 教徒를 적발했는데 吉林省 省議員 全家人 등이 大乘門을 믿었고, 1922년 1월 邪教 혐의로 체포된 楊樹泰가 ‘필경 省議員의 명의를 빌려 사람들을 속이고 入敎하게 했다’고 한다.<sup>25)</sup> 정치적 유력자와의 결탁이 엿보인다.

이런 大乘門 教徒가 동북지역에서 가장 많았던 곳은 鳳城縣 大湯溝 일대였다.<sup>26)</sup> 아무튼 大乘門은 民國시기 奉天省(1928년 遼寧省으로 개칭해 오늘날에 이름)의 鳳城縣 일대를 장악했고, 大乘門과 鳳城縣의 관계가 특별했다. ‘檔案資料’에서도 大乘門 관련 언급은 鳳城縣에서만 나오고, 鳳城縣에서 발견된 민간종교는 大乘門뿐이었다.

奉天省의 黑山縣과 昌圖縣에서는 白陽敎가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清代 민간종교가 보편적으로 수용했던 이른바 ‘三期末劫說’에 따르면, 無生老母가 창조한 우주는 시작부터 최후 멸망까지 세 개의 단계를 거치는데, 과거는 練燈佛이 장악한 靑陽世이고, 현재는 釋迦佛이 장악한 紅陽世이며, 미래는 彌勒佛이 장악한 白陽世가 된다. 민간종교는 대개 ‘미래의 구원’을 간절히 기원했기 때문에, ‘白陽’은 민간종교결사의 명칭으로 흔하게 사용되었고, 明清代에 걸쳐 龍天敎, 羅敎의 별칭 내지 支派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sup>27)</sup> 가깝게는 1815년에 ‘天理敎 反亂’을 일으켰던 林淸이 본래 紅陽敎 계통의 白陽敎 教徒였다. 그가 나중에 天理敎라는 새로운 敎名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들 紅陽敎, 白陽敎, 天理敎 등은 모두 山東에서 흥기했던 八卦敎에서 연원한다.<sup>28)</sup>

24) 이은자, 『秘密結社의 遺産과 現代中國 — 法輪功의 歷史的 起源』, 594쪽.

25) 『鳳城縣查獲大乘門邪教教徒(1922.01.20)』,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74쪽.

26) 『鳳城縣解送邪教大乘門首領焦玉珍、張萬通(1923.11.1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83쪽.

27) 馬西沙/韓秉方, 『中國民間宗教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8, 689 ; 691 ; 986쪽.

‘檔案資料’에 따르면, 동북지역에서 白陽教은 1924년 6월 李夢月을 비롯한 15명의 信徒가 적발되면서 알려졌다. 孫慶海라는 巡官이 순찰 도중에 黑山縣 小三家子 西街에서 손에 令旗와 令箭을 들고 북을 치며 길가에서 전도를 하고 있던 李夢月 무리를 갑자기 발견하고 치안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체포했다는 것이다.<sup>29)</sup> 이밖에, 1925년 7월 昌圖縣 八面城에서 경찰이 白陽教 신도 郭貴元 등을 체포하는 사건도 있었다.<sup>30)</sup>

家理教은 1930년에 遼寧省 警務處에서 ‘邪教’로 규정하고 各縣에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1930년 4월 7일 遼寧全省警務處訓令 第451號에, ‘家理教, 즉 安清幫(安靑幫)<sup>31)</sup>의 一種이 따르는 무리를 모아 結黨하였는데, 邪教로서 사람을 미혹함이 오래 되어 만연되었고, 隱患을 양성할 수 있으니, 철저히 단속하라<sup>32)</sup>고 지시하였다.

家理教(‘家裡教’ 또는 ‘在家裡’라고도 함)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적는데, 滿洲國時期에 滿洲事情案內所에서 펴낸 자료에 따르면, 家理教은 達磨大師를 始祖로 섬기는 臨濟禪의 한 支派에 해당하는 민간종교로서, 天, 地, 君, 親, 師의 5字를 本尊으로 섬기고, 忠, 孝, 悌, 仁, 義, 禮, 恥 7字를 教範으로 상호부조를 실행하는 靑幫의 流派였다고 한다. 浙江 杭州 출신의 潘德林, 山東의 翁德正, 鐵德慧 3인이 清代 康熙年間에 화북지방에서 穀類의 輸入을 위해 다수의 노동자를 모집하여, 종교적으로 결성하였다. 清代 康熙帝

28) 李尙英, 「八卦教的淵源、定名及其與天理教的關係」, 『清史研究』 1992年 第4期.

29) 『黑山縣拿獲斂財邪教教匪李夢月等(1924.06.1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21~128쪽.

30) 『查禁昌圖縣境內白陽邪教(1925.07.25)』,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42~147쪽.

31) 安靑幫은 靑幫의 한 집단인데(池子華, 『流民與近代盜匪世界』, 『安徽史學』 2002年 第4期, 2002.11, 41쪽.), 주지하듯이 靑幫은 淸初 이래 가장 널리 전파되고 영향력도 가장 컸던 會黨의 하나로, 淸末民國時期에는 洪門, 哥老會와 함께 3대 幫會 중의 하나였다.

32) 『遼寧全省警務處查禁家理教收徒結黨(1930.04.0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77쪽.

도 漕運을 위해 이용할 바가 있어 옹호하였고, 널리 유포하는 상황을 보기에 이른다.<sup>33)</sup> 이후 光緒 27년(1901) 漕運이 중단되어 운송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자 다시 전교를 시작하여,民国 초기에 山東, 河北 등에 신도가 매우 많아졌다. 나중에 이들이 동북으로 이주하면서 동북에도 家理教 信徒들이 크게 증가하였다.<sup>34)</sup>

동북에서도 家理教는 공개적인 외곽조직을 갖추었다. 특히 하얼빈을 중심으로 하는 黑龍江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했는데, 1928년 11월에 吉林勸戒煙酒總會에서 분리되어 濱江支會가 생기고, 1930년에는 독립해 濱江理教聯合總會가 되었다. 조직은 財政, 指導, 糾察, 文書, 宣傳의 各部로 나누고, 家裡 寺院 건설, 공공 묘지 구입, 의무소학교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철도 종사자나 松花江을 중심으로 하는 船員, 船主, 기타 군인, 순경, 중요 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을 망라하여 공고한 단결을 도모했다고 한다.<sup>35)</sup>

## (2) 동북 고유의 민간종교결사 : 大聖門, 二角二分五

‘檔案資料’에서 발견되는 민간종교결사 중에 大聖門, 二角二分五라는 것은 다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동북지역 특유의 민간종교결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檔案資料’에 따르면, ‘1919년 1월에 黑山縣과 開原縣의 知事가 각각 산하 警察所에 大聖門이라는 일종의 邪教가 사람들을 홀려 재물을 편취하고 있으니 조사해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sup>36)</sup> 지시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1926년 1월에도 奉天全省警務處가 黑山縣 知

33) 瀧澤俊亮, 『滿洲の街村信仰』, 滿洲事情案內所, 1940, 292쪽.

34) 何妍, 『民國時期東北民間宗教問題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論文, 2003. 5, 11쪽.

35) 瀧澤俊亮, 『滿洲の街村信仰』, 292쪽.

36) 『黑山縣查禁邪教(1919.01.08)』; 『開原縣查禁大聖門邪教(1919.01.2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44~54쪽.

事에게 大聖門으로 인한 인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조사해 엄금하라는訓諭을 내리고 있는<sup>37)</sup> 것으로 보아, 대개의 민간종교가 그렇듯이 당국의 일시적 단속으로는 근절되지 않았다. 아무튼 大聖門은 ‘大聖’이라는 명칭에서 유교적 색채가 엿보이는 특이함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孔敎會의 會員證과 徽章 등을 도용하여 孔敎會 會員임을 사칭하기도 했다.<sup>38)</sup>

1913년 6월 孫立志라는 일반인의 신고로 적발된 ‘二角二分五’라는 민간종교도 다른 지역에서는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檔案資料’에 따르면, 遼陽, 海城, 營口, 蓋平 등에서 ‘二角二分五’라는 ‘邪敎’이 ‘큰 재난(大劫)이 와서 모두가 죽음을 면치 못할 터인데, 자기 敎에 들어오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고, 나중에 관직을 얻어 眞主를 모시고 升平을 누릴 수 있다’고 전도하여 수만 명의 신도를 모았다. 또한 헌금에 따라 土盤, 銅盤, 金盤이라는 등급을 부여해 거액을 편취하였다고 한다.<sup>39)</sup> 1919년 1월 14일자 『盛京時報』에서도 ‘海城縣 북쪽의 西陽寺 山廟에 二角二錢五라는 邪敎이 있어 勸敎를 명분으로 삼지만, 실은 鄉民을 愚弄하여 金錢을 편취’한다고 전하고 있다.<sup>40)</sup>

### (3) 사회단체 형태의 민간종교결사 : 北京輔國仁義軍, 萬國道德會, 法師會

‘檔案資料’에는 동북지역 민간종교로 北京輔國仁義軍, 萬國道德會, 法師會 등의 명칭이 나온다. 이들은 ‘邪敎’의 혐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종래의

37) 『奉天全省警務處查禁邪敎巫醫騙財害人(1926.01.28)』,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48~152쪽.

38) 『開原縣查禁大聖門邪敎(1919.01.2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53~54쪽.

39) 『遼海營蓋等處邪敎惑衆并借名斂財應通飭查拿(1913.7.2)』,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3~6쪽.

40) 『邪敎惑人』, 『盛京時報』 1919.10.14.

某某教라는 명칭을 피하고 조직체계도 일반 사회단체를 모방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1924년 3월 奉天全省警務處와 保甲總辦公所가 공동으로 黑山縣 知事에게 보낸 「密令」에 따르면, ‘興城縣, 凌源縣, 朝陽縣 등에서 자칭 北京輔國仁義軍이라는 邪教가 護身符籍으로 인민을 현혹하고, 劉寶善이라는 教主가 군대처럼 司令部를 설치해 지휘하고 있다’고 하였다. 北京輔國仁義軍이라는 조직이 동북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아무래도 이들이 이런 명칭을 사용한 것은 당시 軍閥內戰 즉, 1, 2차 直奉戰爭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당시는 1922년 4월에 일어난 1차 直奉戰爭과 1924년 9월에 발발한 2차 直奉戰爭의 와중에 있었다.

1930년 7월 撫順縣 公安局長이 遼寧全省警務處에 ‘教匪 首領 劉敏峯, 楊兆隆, 張雲普 등이 萬國道德會라는 이름으로 傳教 行爲를 벌여 체포했다<sup>41)</sup>고 보고하였다. 萬國道德會는 1919년 山東 濟南 출신의 江鍾秀, 江希張 父子에 의해 창설되었다. 江希張은 6살 때에 「白話四書」를 지었을 정도로 神童이었다고 한다. 1911년에는 皇帝의 學友가 되기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清朝가 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국내외 인심의 동요에 마음이 아팠던’ 神童은 아버지와 함께 濟南에서 萬國道德會를 창설하였다. 당시 유명인사, 학자들이 찬성하여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儒教, 佛敎, 道敎, 기독교, 이슬람교 5敎를 혼용해 ‘道德의 회복을 통한 救世’를 교리로 내세웠고, 정교한 章程과 조직체계를 갖추었다.<sup>42)</sup> 1920년에는 靑島에 분회가 세워지고, 1921년에는 정부의 인가를 얻어, 康有爲가 회장에 취임하였다.

41) 「遼寧全省警務處查禁邪教萬國道敎會(1930.07.02)」,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86~192쪽. 제목에 ‘萬國道敎會’로 되어 있는 것은 편집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 ‘萬國道敎會’가 한 차례 나오지만, 그 뒤에는 ‘萬國道德會’로 되어 있고 다른 자료 어디에도 ‘萬國道敎會’라는 것은 없다.

42) 萬國道德會에 대해서는 雷輝, 『萬國道德會的歷史考察』, 山東師範大學 碩士論文, 2008. 참조.

더욱이 외국 공사나 영사의 주선으로 외국에서도 분회를 설립했다.<sup>43)</sup>

萬國道德會가 동북에 전해진 것은 1926년 吉林의 旗人 常翼忱이 가입하여, 吉林總分會를 설립하면서이다. 1927년에는 黑龍江 安達站에 분회가 설립되고, 같은 해 7월에는 濟南에서 金顯瑞가 와서 大連公議會 회장 張木政 등의 지원을 받아 大連分會를 설립하였다. 이후 수년 동안 東北과 內地를 합쳐 150여 곳의 분회를 설립되었다고 한다.<sup>44)</sup> 奉天 지역에서는 朝陽縣 사람 王鳳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sup>45)</sup>

‘檔案資料’에서 萬國道德會가 ‘邪教’로 거론되어 단속 대상이 된 것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萬國道德會와 무관한 민간종교가 당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공개된 조직의 명의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이들이 사실상 ‘邪教’에 속하지 않음에도 단속 대상이 되었던 ‘과잉 단속’의 가능성이다. ‘檔案資料’의 『遼寧全省警務處訓令』에서도 이들을 ‘邪教’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教匪 수령으로 체포된 자들도 진술에서 자신의 활동이 정당하고 공개적이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萬國道德會를 教匪로 몰아 信徒를 체포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法師會의 경우에도 ‘邪教’의 혐의가 분명하지는 않았다. 黑山縣 大夏窩堡村에서, 三皇을 매개로 사람을 모으고, 집회를 열어 經法을 강연하고, 槍旗를 만드는 등의 일이 있자, 村長이 혹시나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날까 염려해 이들을 고발하였고, 해당 지역의 大隊長이 체포에 나섰다. 이에 法師會 會長이 ‘우리가 官府에 반항했던 적인 있었느냐’고 항의하자, 大隊長은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깨닫고 우선 會長만 체포한다. 결국에는 22명의 信徒가 체포되고, 다수의 장물이 압수되었다.<sup>46)</sup>

43) 瀧澤俊亮, 『滿洲の街村信仰』, 293쪽.

44) 瀧澤俊亮, 『滿洲の街村信仰』, 293쪽.

45) 雷輝, 『萬國道德會的歷史考察』, 188~189쪽.

46) 『黑山縣拿獲邪教法師會教徒(1931.11.21)』,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

이상에서 보았듯이, 본고에서 기본 자료로 채용한 ‘檔案資料’에는 二角二分五, 黃天教, 大聖門, 大乘門, 北京輔國仁義軍, 白陽教, 家理教, 萬國道德會, 法師會 등의 민간종교결사가 등장하였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고, 전국적으로 명망을 얻었던 九宮道, 先天道, 在理教, 道院의 紅卍字會 등이 동북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7)</sup> 특히, 道院의 紅卍字會는 동북지역을 매우 중시하였고, 종교 및 사회사업의 영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民国시기 민간종교의 새로운 경향으로서 주목할 가치가 매우 크지만, 그 자체로 매우 방대한 작업이어서 초보적으로 동북지역 민간종교결사의 대략적인 지형 정도를 다루는 본고에서는 깊이 천착할 겨를이 없다.

## 2. 민간종교의 유입과 흥기의 배경

이상과 같이 동북지역의 민간종교를 보면, 內地에서 이미 세력을 떨치던 민간종교결사가 이민과 함께 동북지역으로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黃天教, 大聖門, 白陽教, 家理教, 在理教, 北京輔國仁義軍, 萬國道德會, 道院의 紅卍字會 등이 關內에서 유입된 사례들인데, 二角二分五나 大聖門과 같은 자생적인 것보다 훨씬 비중이 크다. ‘檔案資料’에서도 黃天教 하얼빈 分部の 部長 李繼業이라는 사람은 山東 掖縣 사람으로서, 하얼빈의 黃天教가 이민과 함께 유입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sup>48)</sup> 동북에 크게

---

北卷一) 第8冊, 195~202쪽.

47) 濮文起, 『民國時期民間秘密宗教簡論』, 『天津社會科學』 1994年 第2期, 94~96쪽; 何妍, 『民國時期東北民間宗教問題研究』, 8~13쪽; 『東三省之邪教世界』, 『盛京時報』 1914.06.06. 등등 참조. 특히 在理教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례로 扶餘縣에서는 在理教가 佛敎, 儒敎를 포함한 전체 종교에서 10%를 차지했다고 한다. (『吉林省扶餘縣四家子屯風俗習慣、生活水平(1938年)』,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11冊, 202쪽.)

48) 『北鎮縣查明縣屬境內並無黃天邪教(1915.08.31)』,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5~18쪽.

유행했던 在理教도 清代 道光 및 咸豐 年間에 山東 肥城縣에서 일어났던 黃崖教主 張積中の 후예들이 우여곡절을 거쳐 華北과 東北의 도처로 흩어졌고, 항상 연계를 유지하라는 지령을 지켜오다가, 東北에서 在理教로 결합했다는 것이다.<sup>49)</sup> 두 사례 모두 내지에서의 민간종교결사가 이주와 함께 동북으로 유입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근대 이후의 동북 사회가 내지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을 통해 성립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민에 따른 민간종교의 유입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清代 咸豐年間 封禁政策이 철폐된 이후, 다양한 요인으로 이한 내지인의 동북 이주가 급증하였고, 이는 민간 종교 및 신앙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종교를 함께 가지고 왔으며 동북사회에 複製, 移植하였다.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종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文化的 複製와 移植을 통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간종교결사가 동북에 유입되고 흥기하는 데에는 天災와 人禍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제공했다. 2천년에 걸친 중국 민간종교결사의 역사로 볼 때도 이는 일관되게 지속되는 하나의 특징이다.

天災의 경우는 이미 전술했듯이 콜레라의 유행을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예컨대, 黃天教는 ‘콜레라의 발생을 인민이 黃天教를 믿지 않아 하늘이 재앙을 내릴 징조라고’ 선전하였고, 전염병에 대한 인민의 공포심을 부추겨 입교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sup>50)</sup>

人禍와 관련해서는, 1922년 4월 1차 直奉戰爭으로 인한 사회 불안이 민간종교의 흥기와 연결되는 명확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1922년 6월 21일자 『奉天省長公署訓令』에 따르면, 당시 我軍(奉天軍)이 패퇴하자 흥흥한 ‘유언비어’가 횡행하였는데, 첫째, 奉天軍이 이번 패배로 철저히 괴멸

49) 瀧澤俊亮, 『滿洲の街村信仰』, 288쪽.

50) 『黃天教蔓延如此』, 『盛京時報』 1914.06.24.

당하였으니, 아무도 군대에 가서는 안 된다. 군대에 가게 되면 곧 바로 돌아가겠다고 울부짖어라. 둘째, 군대의 패배에 이어 대재앙이 따라올 것이니, 지금 회개(修好)하지 않으면 모두가 橫死할 것이고, 회개하면 능히 超脫할 수 있다. 여자는 伴仙이라고 하여 산에 올라 밤을 지새워야 한다.(당국은 이때 온갖 음탕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함.) 셋째, 掛號라 하여, 긴급하게 每人 大洋 5元을 보내면 災厄을 면할 수 있다. 넷째, 장래 萬인이 구덩이에 묻힐 것이니, 인민은 가능한 빨리 이사를 해야 한다. 단, 산 속으로 피신해서는 保佑費라고 해서 반드시 大洋 2元을 보내야 한다. 이는 黃陽教의 경우인데, 이를 통해 直隸 쪽과 가까운 奉天省 서부 일대를 중심으로 教徒가 수만에 이르렀다고 한다.<sup>51)</sup>

기본적으로 인민이 민간종교를 찾는 이유가 불안과 위협에 대처해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안이 고조되었을 때 민간종교가 더 잘 확산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다. ‘檔案資料’를 통해, 민간종교결사 이외에 廟會나 演戲를 통해 기원하는 것을 살펴봐도,<sup>52)</sup> 각종 자연재해와 전염병, 兵亂과 戰禍, 匪災 등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밖에, 이주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민자들로 하여금 종교결사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측면은 동북 고유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요컨대, 滿洲國時期 滿洲事情 案內所가 편찬한 자료에서는 家里教가 흥기하는 과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만주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 원래부터 살던 토착민이 적고, 서로 面識이 없어 항상 불안하게 살았다. 그들은 자기 보존의 필요를 위해서도 유력

51) 『奉天省長公署查禁邪說惑衆(1922.06.21.)』,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78~82쪽.

52)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5冊』, 375~500쪽.

한 團結을 갈망하였다. 그래서 그들 同志 간의 保身을 위한 방어적 비밀업수 및 상호 의사 전달은 의외로 놀랍다. 저들이 타향에 살면서 懷疑와 불안으로 망령되게 행동한다면, 爲政者로서도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無智한 무리는 이런 不安을 이용한 入會 권유를 많이 받았고, 많은 便益이 있다는 말에 쉽게 걸려든다.<sup>53)</sup>

이민을 와서 불모지를 개척하는 과정 자체가 고난이었을 것이고,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 간의 이질감이 상호 갈등 요인이 되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편’을 만들고 ‘자기편’ 상호 간의 의리와 협조, 단결이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이런 동북 특유의 배경이 내지의 민간종교가 이식되는 과정에도 작용했을 것이고, 근대 이후 동북 특유의 ‘복합성’ 내지 ‘복합구조’가 민간종교의 전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를 기대한다.

### Ⅲ. 민간종교의 존재 양태와 지방당국

이상에서 민국시기 동북지역에 어떤 민간종교결사가 있었고 그들이 대략 어떤 특징적 면모를 보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까지는 개별 종교결사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아래에서는 전반적인 존재 양태와 지방당국의 민간종교에 대한 대응에 대해 살펴본다.

#### 1. 민간종교의 존재 양태와 특징

민간종교결사의 결성과 입교는 기본적으로 天災人禍의 위기상황에 대

53) 瀧澤俊亮, 『滿洲の街村信仰』, 292쪽.

처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수세적’ 행위였다. 이러한 ‘수세적’ 태도는 당국의 처벌에 대응하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清末의 상당수 ‘民變’이 이른바 ‘官逼民反, 紳逼民死’의 矛盾과 口號를 배경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sup>54)</sup> 민간종교결사가 본래 저항을 위해 결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데, 民國시기 동북지역에서는 ‘官逼’(당국의 단속과 탄압)에 대해서조차 ‘民反’(저항)을 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1923년 11월 ‘邪教’ 혐의로 체포된 大乘門 教徒 焦玉珍, 張萬通 등은 ‘保甲에 의해 무고를 당한 것으로 농사꾼인 자신들은 감히 異端에 힘 쓴 일이 없고, 不學無術한 잘못밖에 없으니, 살피주시면 大德無極하겠다’고 관용을 간청하고 있다. 또한 다른 教徒들은 이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바로 잠적하였다.<sup>55)</sup> 또한, 전술했던 白陽教 首領 李夢月은 ‘자신들은 기우제에 참가했을 뿐이고, 令旗나 令箭과 같은 물품은 大民屯에 얻은 것이며, 부정 해위를 한 적이 없고, 다만 世人을 救濟하기 위해 좋은 일에 힘쓰고 있으니 너그러이 살피주시기를’ 간청하였다.<sup>56)</sup> 하지만 또 다른 공문에서는, 조사를 통해 이들이 ‘지방에서 꽤 거리를 지어 焚香하고, 謠言으로 대중을 미혹한 정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고하였다.<sup>57)</sup> 결국 李夢月은 경황 중에 도망해 숨고, 몇 명의 教徒들은 체포되어 令旗, 令箭을 포함한 다수의 장물과 함께 縣警察所로 송치되었고, 나머지 教徒들은 해

54) 章征科, 『辛亥革命時期鄉村民變的特点及成因探析』, 『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3卷 第2期, 2001.3; 王先明, 『士紳階層與晚清“民變”——紳民衝突的歷史趨向與時代成因』, 『近代史研究』 2008年 第1期. 참조.

55) 『鳳城縣解送邪教大乘門首領焦玉珍、張萬通(1923.11.1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83~89쪽.

56) 『黑山縣拿獲斂財邪教匪李夢月等(1924.06.1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21~128쪽.

57) 『黑山縣清查邪教白陽教情形(1924.06.25)』,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29~131쪽.

산하였다고 한다.<sup>58)</sup> 저항이나 ‘반역’보다는 곤란을 회피하려는 ‘수세적’, ‘소극적’ 태도가 역력하다.

또한, 동북지역 민간종교결사의 활동이나 조직을 보면 ‘공개성’이 잘 드러난다. 요컨대, 전술한 黃天敎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도 방식이 상당히 공개적이었다. ‘맨투맨’으로 전도하는 방법 이외에, 宣講堂을 빌려 宣講을 통해 전도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黃陽敎의 경우에도 여러 곳의 宣講堂에서 집회를 열면 40~50명의 인원이 참가했다고 한다.<sup>59)</sup> 1923년 11월의 『奉天省長公署布告』에서도 ‘각 寺廟가 대담하게도 學堂을 假借하여 宣講 명의로 邪敎를 성대히 제창하고, 黨徒를 모으니 그야말로 무법천지’라고 지적하였다.<sup>60)</sup> 또한, 민국시기에는 ‘扶乩’라고 불리는 일종의 전통적인 점술이 전도나 신앙생활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었는데,<sup>61)</sup> 이런 경향이 동북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음을 ‘檔案資料’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62)</sup> 扶乩라는 점술은 보통 여러 사람이 참여해 공개적으로 한다. 이밖에, ‘길거리 전도’ 같은 것도 보인다. 일례로 전술했듯이 白陽敎徒 李夢月 무리는 ‘손에 旂와 箭을 들고 북을 치고 폭죽을 터뜨리며 路上에서 勸敎를 하다’가 체포되었다. 전술한 大乘門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종교결사가 지역의 유력자와 결탁했던 경향도 공개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전술했듯이 일반 사회

58) 『黑山縣拿獲邪敎白陽敎餘黨(1924.07.0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32~135쪽.

59) 『奉天省長公署查禁邪說惑衆(1922.06.21.)』,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78~82쪽.

60) 『奉天省長公署查禁邪敎惑衆斂財(1923.11.1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90~105쪽.

61) 陳明華, 『扶乩의 制度化와 民國新興宗敎의 成長-以世界紅卍字會道院爲例(1921-1932)』, 『歷史研究』 2009年 第6期, 2009.12, 63~64쪽.

62) 『東三省總督等嚴令禁止入廟燒香扶鸞請乩(1910.04.1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2쪽. ; 『奉天省長公署查禁邪敎惑衆斂財(1923.11.1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90~105쪽.

단체를 모방한 北京輔國仁義軍, 萬國道德會, 法師會나 당시 ‘남만주 지역 중국인의 종교계 및 사상계에 가한 신선한 衝動이 적잖았고’<sup>63)</sup> 민간종교의 새로운 경향으로서 크게 주목받았던<sup>64)</sup> 道院 附設 紅卍字會의 다양한 사회활동도 민간종교의 공개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동북지역 민간종교 결사의 ‘공개적 성격’을 볼 때, 공세적 ‘반역’을 함의하는 ‘비밀결사’로서의 성격(비밀성)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볼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白蓮教를 비롯한 대개의 민간종교결사는 민중반란을 통해 국가권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 ‘반역’이나 ‘비밀결사’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고 이런 경향이 연구에도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동북지역 민간종교결사의 ‘수세적’, ‘소극적’ 태도나 ‘공개성’은 이러한 이미지와 상당히 배치된다. 필자는 민간종교결사에 상기한 ‘정치적’ 기능과 일상의 신앙생활을 담보해주는 ‘일상적’ 기능이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종교결사에서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신앙 혹은 종교적 성격이 한층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 2. 민간종교에 대한 당국의 인식과 대응

이상과 같은 민간종교결사의 성격은 당국의 민간종교결사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민국시기 동북의 지방 당국은 민간종교결사를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민국시기 東三省 省政府 및 縣政府는 상기한 민간종교를 모두 ‘邪教’로 규정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격히 금지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런 ‘邪教’에 대한 엄단 의지는 漢代 이후 歷代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다. 代代로 왕조

63) 松尾爲作, 『南滿洲ニ於ケル宗教概觀』, 教化事業獎勵資金財團, 1931, 33쪽.

64) 滿洲事情案内所 編, 『滿洲國の宗教(滿洲事情案内所報告 48)』, 新京: 編者刊, 1939, 45~46쪽.

말기에는 어김없이 ‘비밀종교결사’가 ‘반역’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엄단 의지의 저변에는 민간종교결사가 언제 ‘반역’의 중심에 서서 기존 질서와 체제를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민국시기 동북지역에서는 당국이 ‘邪教’의 어떤 측면을 우려하였을까? 1925년 7월에 발령된 『奉天省長公署訓令』은 當局이 ‘邪教’에 대해 무엇을 우려하는지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邪教의 해로움은 작게는 다중을 홀려 愚民의 재물을 편취하고, 때로는 失業을 야기하고, 크게는 반역(不軌)을 도모하고 치안을 어지럽히는 것에 있다. 黃巾賊이나 白蓮教를 다시 불러낼 수도 있으니, 지방을 책임 맡은 자는 마땅히 진지하게 조사하고 금지해야(查禁) 한다.<sup>65)</sup>

‘檔案資料’를 분석해 보면, ‘邪教’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惑衆斂財’이다.<sup>66)</sup> ‘다중을 미혹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뜻인데, ‘邪教’가 거론되는 거의 모든 공문에서 관용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술했듯이, 실제로 민간종교결사에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걷는 사례가 많았다. 大聖門의 경우, ‘재물을 내면 長生할 수 있다고 했고, 二角二分五는 현금 액수에 따라 土盤, 銅盤, 金盤 등으로 등급이 매겨졌다. 黃陽教도 ‘掛號’라 해서 ‘긴급하게 大洋 5元을 내면 災厄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은 조사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인민이 재물을 편취 당하는 바를 ‘邪教’의 가장 큰 폐단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邪教’를 선

65) 『查禁昌圖縣境內白陽邪教(1925.07.25)』,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44쪽.

66) 『遼海營蓋等處邪教惑衆并借名斂財應通飭查拿(1913.07.02)』; 『奉天省長公署查禁邪教惑衆斂財(1923.11.17)』; 『黑山縣拿獲斂財邪教教匪李夢月等(1924.06.14)』; 『黑山縣政府嚴令查禁邪教巫醫惑衆斂財(1929.04.26)』; 『復縣縣政府取締復縣白雲山朱仙姑惑衆斂財(1931.08.19)』,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3~6쪽; 90~105쪽; 121~128쪽; 163~168쪽; 193~194쪽. 등등.

전하는 것은 바로 재물을 편취함에 그 뜻이 있다<sup>67)</sup>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奉天省長公署訓令』에서 보듯이, ‘치안’이나 ‘반역’에 대한 우려 또한 당국이 ‘邪教’를 보는 주요 시각 중에 하나였다. 따라서 ‘邪教’를 엄격히 ‘査禁’하여 ‘치안’을 확보하라는 언급이 상기한 ‘惑衆斂財’와 대구를 이루어 관용적으로 표현된다. 다만, 전술한 민간종교결사의 ‘수세적’ 태도나 후술하는 단속의 느슨함을 고려해 볼 때, ‘반역’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현실적’이지는 않은 듯하다. 치안에 대한 언급은 많지만, ‘반역’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는 경우는 상기한 『奉天省長公署訓令』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전체적으로 ‘檔案資料’의 문맥을 보아도, 국가권력 차원의 저항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었다는 느낌이다.

이밖에, 인민이 ‘邪教’에 빠져 일을 하지 않아 생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sup>68)</sup> 이외에, 男女 教徒가 야심한 밤에 어울려 풍속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다소 있었다. 예컨대, 1918년 8월 黑山縣公署에서 각지 게시한 『告示』에는 ‘近者에 男女 教徒로 인해 省都의 야심한 밤이 어지럽다<sup>69)</sup>’는 구절이 있다. ‘男女의 混雜’에 대한 우려는 ‘迷信’에 대한 당국의 인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교적 사고방식의 연장선에서 ‘邪教’와 관련해서도 언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 아래 省政府나 縣政府는 산하 경찰 및 향촌의 保甲, 村長 등에게 ‘邪教’를 엄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거듭해 발령하였다. 은밀히 비밀요원(密査員)을 보내 조사하기도 하였으나,<sup>70)</sup> ‘邪教’의 활동이 향촌 단위에

67) 『奉天全省警務處査禁邪教巫醫騙財害人(1926.01.28)』,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48쪽.

68) 『奉天省長公署布告第1號(1923.11.1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05쪽.

69) 『黑山縣公署査禁邪教維護治安(1918.08.22)』,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42쪽.

70) 『黑山縣査禁邪教北京輔國仁義軍(1924.03.2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

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은 기층의 保甲, 警甲, 村長의 손에 달려 있었다.<sup>71)</sup>

그러나 ‘邪教’를 대하는 基層과 上級의 인식과 태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층의 행정체계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아래에서 보듯이 상급에서는 기층의 이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책망하였다. 심지어는 村長으로 하여금 해당 향촌에 ‘邪教’가 없다는 보증서(切結)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sup>72)</sup>

‘邪教’를 단속해야 하는 區長, 警甲, 村長 등이 이를 放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73)</sup>

各縣은 (邪教를 단속하는) 일에 대해 경솔히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없는 규정으로 여기고 열심히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았다.<sup>74)</sup>

邪術로 재물을 편취하는 일은 본디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로, 省政府에서 거듭해 명령을 내렸으나, 날이 좀 지나면 다시 해이해져 警察이 단속에 힘을 쏟지 않는다.<sup>75)</sup>

여러 차례 查禁을 공식 嚴令했는데, 각 지방관은 奉行하는 데에 힘쓰지 않고, 시일이 흘러 소홀한 마음이 생겼다.<sup>76)</sup>

---

案(東北卷一) 第8冊, 112쪽.

71) 『開原縣查禁大聖門邪教(1919.01.2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53~54쪽.

72) 『黑山縣清查邪教白陽教情形(1924.06.25)』,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29쪽.

73) 『查禁昌圖縣境內白陽邪教(1925.07.25)』,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42~147쪽.

74) 『遼寧省政府嚴令查禁邪教(1929.03.11)』,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56쪽.

75) 『安東縣嚴禁巫醫跳大神騙錢(1930.05.30)』,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184쪽.

76) 『奉天省長公署布告第1號(1923.11.17)』,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

이상에서 보듯이, 기층에서는 대체로 민간종교에 대한 단속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연구에 따르면, 清代에도 ‘邪教’ 단속에 대한 민간의 태도는 완전 무관심이었고, 保甲制는 邪教의 체포를 위한 관방의 무기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邪教’를 적극적으로 고발한 사건을 보면 그 동기가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 邪教 자체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한다.<sup>77)</sup> ‘檔案資料’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일례로 1923년 11월 大乘門 혐의로 체포된 陳得和 등은 保長, 區長, 村正이 모두 근일에 제멋대로 취임한 무뢰배로서 자신들을 허위로 고발해 무고를 당했다고 호소하였다.<sup>78)</sup>

민간종교결사는 教徒 나름의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당국의 느슨한 대응으로는 근절될 수 없는 것이었다. 전술했듯이 단속을 계속해서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 민간종교결사는 계속되었다. 일례로, 鳳城縣 羊峪의 주민 楊樹泰는 大乘門을 믿었는데, ‘安東審判廳에서 徒刑(징역)을 판결 받아 죄 값을 치른 후에도 여전히 邪教를 신앙했다’고 한다.<sup>79)</sup>

이상에서 민간종교결사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재물 편취’에 치중된 인식, ‘邪教’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있어 상급 정부와 기층 행정체계의 괴리와 그로 인한 느슨한 대응, 이에 따른 민간종교의 지속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당국의 대응에서도 민국시기 동북지역 민간종

---

卷一) 第8冊, 105쪽.

77) 梁景之, 「從“邪教”案看清代國家權力與基層社會的關係」, 『清史研究』 第3期, 2003.8, 53~57쪽. ; 周向陽, 「查禁“邪教”: 清代民間的回應及原因探析」, 『南昌航空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4卷 第2期, 2012.6. 참조.

78) 『鳳城縣解送邪教大乘門首領焦玉珍、張萬通(1923.11.14)』,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87~89쪽.

79) 『鳳城縣查獲大乘門邪教教徒(1922.01.20)』,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 第8冊』, 74쪽.

교의 ‘비정치적’, 일상의 신앙적 성격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종교의 개황, 존재 양태와 지방당국의 대응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黃天教, 大乘門, 白陽教, 家理教, 大聖門, 二角二分五, 北京輔國仁義軍, 萬國道德會, 法師會 등의 민간종교결사가 활동했고, 이들은 當局에 의해 ‘邪教’로 규정되어 단속의 대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이밖에도 전국적 규모의 九宮道, 先天道, 在理教, 道院의 紅卍字會 등이 동북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이 清代 중엽 이후 급증한 이민과 함께 동북에 유입된 것이었다. 초기에는 - 나중에는 동북 특유의 변모가 발생하겠으나 - 문화적 移植과 複製에 의해 동북지역의 민간종교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천년에 걸친 중국의 민간종교결사가 대개 그렇듯이, 민간종교결사가 흥기하는 데에는 天災와 人禍가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동북의 경우에는 이주민의 사회라는 특성이 민간종교의 흥기에도 영향을 끼쳤다. 말하자면, 이주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민자들로 하여금 종교결사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측면은 동북 고유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민간종교는 기본적으로 天災人禍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인민 나름의 방편이었고, 위협에 대한 ‘수세적’ 행위였다. 당국의 단속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이를 ‘회피’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활동이나 조직 측면에서도 ‘비밀결사’로서의 성격보다는 ‘공개적’인 양태를 많이 보여주었다.

‘邪教’에 대한 當局의 인식을 보면, 이들이 인민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였다. 또한 치안을 어지럽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였다. 부차적으로는, 인민이 ‘邪教’에 빠져 생업을 잃게 될 것이고,

男女 教徒가 무분별하게 어울려 미풍을 해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이를 명분으로 거듭해서 ‘邪敎’에 대한 단속을 지시하지만, 실질적으로 ‘邪敎’를 단속해야 할 향촌의 區長, 保甲, 警甲, 村長 등은 단속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상의 논의는 아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근대 이후 동북지역의 민간종교는 이주민과 함께 내지에서 유입되어 성립된 것이었다. 이는 여타 민간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祠廟와 廟會, ‘演戲酬神’ 등과 같은 민간신앙도 처음에는 내지의 것이 移植되고 複製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민사회’라는 특성이 동북지역 민간 종교 및 신앙의 형성과 전개에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동북 특유의 ‘五方雜處’가 민간신앙의 다원성 내지 복합성을 초래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양상은 후속되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둘째, 민간종교결사에는 본래 ‘정치적’ 맥락과 일상의 신앙적 기능이 중첩되어 있는데, 민국시기 동북지역의 민간종교결사에는 후자 한결 강했다는 점이다. 이는 동북지역 민간종교결사의 ‘수세적’, ‘소극적’ 태도, 다양한 측면의 ‘공개성’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재물 편취’에 치중된 인식, ‘邪敎’에 대한 상급 정부와 기층 행정체계의 괴리와 그로 인한 느슨한 대응, 민간종교의 지속성 등 지방당국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민간종교를 포함한 민간신앙이 중국사회의 ‘장기 지속적’ 토대로서 이어진다는 점이다. 省政府나 縣政府는 민간종교결사를 ‘邪敎’로 규정하고 엄격한 단속을 누차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의 주체인 기층 사회의 保甲, 警甲, 村長 등은 민간종교에 대하여 매우 느슨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런 현실상의 느슨함은 민간신앙과 관련된 ‘미신타파’의 문제에서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것이 일반 인민에게 삶 그 자체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권력이 의도한다고 해서 근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었다. 이런 점에서 근대 이후 ‘邪敎’와 ‘迷信’이라는 비판 담론을 기초로 해 표면상 드러나는 국가권력 및 지배엘리트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간종교결사를 포함한 민간신앙이 중국사회의 ‘장기 지속적’ 토대로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붓물처럼 부활되는 중국의 민간신앙을 설명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그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주제어** : 중국, 민간종교결사, ‘사교’, 동북지역, 동북삼성, 이민.

(논문투고 : 2014.6.9 / 논문심사완료 : 2014.6.17 / 논문게재 확정일 : 2014.6.20)

## 참고문헌

- 遼寧省檔案館 編, 『中國近代社會生活檔案(東北卷一)』(全27冊), 广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 「東三省之邪教世界」, 『盛京時報』 1914.06.06.
- 「黃天教之內容」, 『盛京時報』 1914.06.12.
- 「黃天教蔓延如此」, 『盛京時報』 1914.06.24.
- 「黃天教最近之舉動」, 『盛京時報』 1914.08.21.
- 「黃天教之內容」, 『盛京時報』 1914.06.12.
- 「邪教惑人」, 『盛京時報』 1919.10.14.
- 松尾爲作, 『南滿洲ニ於ケル宗教概觀』, 教化事業獎勵資金財團, 1931.
- 滿洲事情案內所 編, 『滿洲國の宗教(滿洲事情案內所報告 48)』, 新京: 編者刊, 1939.
- 瀧澤俊亮, 『滿洲の街村信仰』, 滿洲事情案內所, 1940.
- 유장근, 「근대중국에 있어서 국가권력과 종교」, 『근대중국의 지역사회와 국가권력』, 신서원, 2004.06.
- 이은자, 「秘密結社の 遺産과 現代中國 — 法輪功의 歷史的 起源」, 『中國學報』 第47輯, 2003.
- 이은자, 『의화단운동 전후의 산동 - 민간종교결사와 권회에 관한 연구』, 고려대출판부, 2002.12.
- 이은자, 『중국 민간 종교 결사, 전통과 현대의 만남』, 책세상, 2005.
- 전인갑/장정아, 「중국 관행 연구와 중국 연구의 재구성 - 試論的 接近」, 『中國近現代史研究』 제48집, 2010.12.
- 김상범, 「唐代 民間 祠廟信仰 研究의 回顧와 展望」, 『中國史研究』 第14輯, 2001.8, 213쪽.
- 최준, 「중국 동북지역의 민간신앙」, 『중앙민속학』 제12호, 2007.

- 송요후, 『中國 民間宗教 研究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摸索』, 『明清史研究』 第34輯, 2010.10.
- 조정은, 『崇拜와 禁止: 清代 福建의 五瘟神 信仰과 國家權力』, 『明清史研究』 제27집, 2007.4.
- 이윤석, 『중국 근세의 祠廟와 지방 통치 - 全國通祀 및 神像存廢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제119집, 2012.6.
- 江沛, 『近代華北城鄉民間信仰述評』, 『河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7卷 第4期, 2002.
- 吳眞, 『民間信仰研究三十年』, 『民俗研究』 2008年 第4期.
- 黃云鶴, 『清至民國時期的東北民神』,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年 第3期, 2007.6.
- 佟冬 主編, 『中國東北史(修訂版)』(全6卷), 吉林文史出版社, 2006.1.
- 曲曉范, 『清末民初中國東北地區黃天教活動考』,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6卷 第4期, 2005.8.
- 王虹波, 『民國時期東北地區的巫術救荒-以盛京時報記載爲中心的考察』, 『求索』 2010-6.
- 趙英蘭、劉揚, 『清末民初東北民間祈雨信仰与社會群体心理態勢』,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第51卷 第5期, 2011.9.
- 張莉, 『黃天教在清代的傳播』, 『歷史檔案』 1996年 3期.
- 沈偉華, 『芻議黃天教无生老母信仰的形成及其在民間宗教信仰体系中的地位』, 『淮陰師範學院學報』 第35卷, 2013.5.
- 趙嘉朱, 『綜論會道門的流傳演變与活動特点』, 『貴州文史叢刊』 2005年 第3期.
- 馬西沙/韓秉方, 『中國民間宗教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8.
- 李尙英, 『八卦教的淵源、定名及其与天理教的關係』, 『清史研究』 1992年 第4期.

- 池子華,『流氓與近代盜匪世界』,『安徽史學』2002年 第4期, 2002.11.
- 雷輝,『萬國道德會的歷史考察』,山東師範大學 碩士論文, 2008.
- 濮文起,『民國時期民間秘密宗教簡論』,『天津社會科學』1994年 第2期.
- 章征科,『辛亥革命時期鄉村民變的特点及成因探析』,『華東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33卷 第2期, 2001.3.
- 王先明,『士紳階層与晚清“民變”——紳民冲突的歷史趨向与時代成因』,『近代史研究』2008年 第1期.
- 陳明華,『扶乩的制度化与民國新興宗教的成長—以世界紅卍字會道院爲例(1921—1932)』,『歷史研究』2009年 第6期, 2009.12.
- 梁景之,『從“邪教”案看清代國家權力与基層社會的關係』,『清史研究』第3期, 2003.8.
- 周向陽,『查禁“邪教”: 清代民間的回應及原因探析』,『南昌航空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14卷 第2期, 2012.6.

## 民國時期東北地域的民間宗教結社和地方当局的對應

朴敬石

本稿對民國時期東北地域民間宗教的概況，存在形式以及其和地方当局的對應進行了分析。黃天教，大乘門，白陽教，家理教，大聖門，二角二分五，北京輔國仁義軍，萬國道德會，法師會等民間宗教結社活動，他們被当局定性為‘邪教’是查禁的對象。除此之外，全國規模的九宮道，先天道，在理教，道院的紅卍字會等也在東北地域活動。他們大部分都是清代中叶以后隨着劇增的移民流入東北的。

民間宗教結社興起的背影里有天灾人禍。從東北的情況來看，除天灾人禍以外‘移民社會’這一特点也影響了民間宗教的興起。換句話說，移居到新的家園后需要開闢困難的環境使移民們更加依賴成立宗教結社。從這些的方面能看到東北固有的特征。

民間宗教基本上是危險的應對‘守勢的’行爲。能看出他們對於当局的查禁一貫的想要採用‘迴避’這種‘消极的’態度。活動或組織這方面也是‘公開的’特性比‘秘密結社’的性質更能展現出來。

從当局對‘邪教’的認識來看，他們對‘惑人斂財’這點最擔憂。另外，對有可能釀成隱患這點也很擔憂。其次是担心陷入邪教的人們有可能會失業，以及男女教徒无節制地混成一起破坏美風。他們名義上一再指示查禁‘邪教’。但是實際上應該查禁‘邪教’的鄉村區長，保甲，村長等在查禁上并不太積極。

以上的論議可以整理為以下幾點。

首先，近代以后東北地域民間宗教是隨着內地移民一起流入而成立的。這和其他宗教信仰也是一樣的。像祠廟和廟會，‘演戲酬神’等這樣的民間信

仰也是在內地的民間信仰的移植和複製的過程形成的。‘移民社會’這一特性在東北地域民間宗教及信仰的形成和發展中受到了很大的影響。

第二，民間宗教結社本來是‘政治性’背景和‘日常性’功能重疊一起的，但民國時期東北地域的民間宗教結社是‘日常性’更加強大。這通過東北地域民間宗教結社的‘守勢的’，‘消極的’態度，多種方面的‘公開性’等可以猜測。另外，注重‘惑人斂財’的認識，基層權力對‘邪教’的寬松應對，根據這些民間宗教的持續等國家權力對應這一層面也是可以確認其‘日常性’。

第三，地方當局對民間宗教的應對是相當松懈的，省政府或縣政府雖把民間宗教結社定性為‘邪教’并多次強調查禁，但實質上查禁民間宗教的各層社會的保甲，警甲，村長等對此採取的是非常松懈的態度。這是不管地方當局及統治精英的強壓，民間宗教能夠持續的原因之一。

**關鍵詞**：中國，民間宗教結社，‘邪教’，東北地區，東三省，移民。